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불의의 화상을 입은 아버지를 치료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강훈 환자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이웃 과수원의 일을 돕다가 큰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나뭇가지를 모아 태우다가 불씨가 바지에 튀었는데, 옷이 화학섬유라서 금세 불이 붙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대처가 늦어서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 동안 입원해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차상위 계층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매달 받는 기초연금으로는 치료비까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아산재단을 소개해주셔서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혹시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큰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도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성은주 드림

